



사라져가는 희귀식물 <15>

진부애기나리

• 학명: *Disporum ovale* Ohwi



글쓴이 · 김재황
사 진 · 김원학

들꽃들과 오랫동안 사귀다 보면, 큰 꽃들보다는 작은 꽃들이 더욱 경이롭게 다가올 때가 많다. 물론, 우리 나라의 들꽃들은 다른 나라의 들꽃보다 대부분 그 크기가 작다. 하지만 그 작은 꽃들을 가만히 들여다볼수록 그 앙증맞은 모습이 너무나 사랑스러워서 쉽게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한다.

특히 애기나리 종류들은 더욱 그렇

다. 봄에 가장 먼저 꽃을 피우는 애기나리, 그 뒤를 이어서 꽃을 피우는 큰애기나리, 그리고 진부애기나리는 한여름이 되어서야 꽃을 피운다. 그 모두가 방글거리며 나를 손짓해 부른다. 아, 그 천진스러운 모습이야말로 내 먼 기억에 아직도 생생하게 살아 있는 '아기 장사' 바로 그 주인공인 듯싶다.

내 고향, 산의 뒷부리가 흘러내려 끝나는 자리에 작은 초가집들이 웅기중기 모여 있는 작은 마을이 있었다. 그리고 이 마을에는 가난한 부부가 살고 있었다.

그들은 결혼을 한지 3년이 지나서야 삼신할머니로부터 아기를 접지받고, 이제 그 부인은 만삭이 되어 있었다.

어느 날, 남편은 먼 산으로 땀 나 무를 하러가고, 그의 부인 혼자서 바느질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진통이 시작되어 홀로 아기를 낳게 되었다. 산파를 부를 경황도 없었고, 고개를 넘어가서 다른 동네를 찾아가야 산파를 만날 수 있었기에, 그 부

인은 하는 수 없이 스스로 아기를 낳을 결심을 했다.

뼈마디가 다 녹는 듯한 아픔을 참아 가며, 그 부인은 얼마의 시간이 흐른 후에 아주 귀여운 옥동자를 낳았다. 아기는 힘차게 첫울음을 울더니, 곧 췌근췌근 잠이 들었다. 그 부인은 아기를 방에 눕혀 놓고는 우물가로 나가서 몸을 깨끗이 씻고 돌아왔다.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인가. 눕혀 놓은 아기가 아무리 둘러보아도 보이지 않았다. 참으로 기가 막히는 일이었다.

부인이 났을 잃고 있자니까, 그 아기가 그 방의 천장에 붙어서 푸드덕거리고 있는 것이었다. 황급히 그 부인이 자기의 아기를 안아서 내리자, 아기는 어머니를 바라보며 방글거렸는데, 자세히 살펴보니, 그 아기의 겨드랑이에 손바닥만한 날개가 달려 있었다.

바로 그 아기가 '장사 아기' 였다고 전하며, 그 아기는 며칠 후에 어디론가 날아가 버리고 말았다 한다.

그 아기는 분명히 산속으로 날아

갔을 터였고, 산속으로 들어가서 들꽃이 되었다면 아무래도 애기나리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나는 가끔 갖곤 한다.

애기나리 종류는 백합과 식물이나 모두가 꽃보다는 잎이 크다. 깊은 산속에서 산다는 진부애기나리는 남쪽의 침엽수림에서 많이 만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키는 30cm쯤 되고, 잎은 6cm쯤 된다. 잎의 모양이 달걀꼴, 또는 긴둥근꼴을 보인다. 잎에는 6개 안팎의 맥이 튀어 나와 있어서 뜨거운 숨결을 느끼게 한다. 그 뿐만 아니라, 맥 사이에 작은 맥이 그물처럼 덮혀 있어서 따뜻한 체온마저 느낄 수 있다.

꽃은 작아서 그렇지, 영락없는 나리꽃이다. 꽃뿔이 조각은 바소꼴로, 끝이 날카롭고, 뒤로 젖혀져 있기에 활짝 웃는 모습이 역력하다.

사람들은 곧잘 진부애기나리와 죽대아재비를 혼동하곤 한다. 죽대아재비는 강원도 이북의 높은 산에서 만날 수 있는데, 보통은 진부애기나리보다 키가 커서 50cm 이상이다.

입도 비슷하고, 얼핏 보아서 꽃도 비슷하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잎은 진부애기나리보다 곱지 못하고, 꽃도 진부애기나리보다 아름답지 못하다. 더욱 자세히 보면 죽대아재비의 꽃줄기는 바로 위에 달린 잎 밑부분까지 원줄기에 붙어 있으며, 떨어진 부분은 그 가운데에 관절이 있어서 꽃이 처진 모습이다. 게다가 진부애기나리는 많으면 3개까지의 꽃이 우산 모양으로 달리지만, 죽대아재비는 1개씩만 꽃이 달린다.

사람들이 사는 곳에서는 무엇보다도 아기들이 보물이니, 아기들의 울음 소리가 들려오는 곳이어야 밝은 미래를 기약할 수 있다. 그와 마찬가지로 높은 산 깊은 숲속의 키 큰 나무들이 사는 곳에서는 애기나리들이 방긋방긋 웃고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그 작고 귀여운 애기나리들이 살 수 있는 숲, 그곳이 진정한 천국이 아닐까 한다.▲▲